

극연의 영화제작과 전문극단 모색

이정숙*

<차례>

1. 1937년 극연의 선택, 영화제작
2. 통속적 내용과 예술적 표현, <애련송>
3. 문예적 영화제작을 위한 모색, <도생록>
4. 극연의 영화제작, 전문극단으로 가는 길 : 결론을 곁쳐서

<국문초록>

극연의 영화는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나 극연의 영화제작은 극연 2기 전문극단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극연 전 구성원이 사활을 걸고 추진한 것이었다. 극연 첫 영화 <애련송>은 『동아일보』 현상공모에 당선된 영화소설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부모님을 위해 사랑하지 않는 남자와 결혼하게 되는 통속적인 이야기 구도를 가져오지만 인물 간 갈등보다 내면의 고민을 부각시킨 작품이다. 영화라는 장르 특성을 고려해서 대중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내용을 다루면서도 작품성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것이다. 극연의 영화는 홍보 전략에서 주목되는데, <애련송>은 영화 제작 전 과정을 『동아일보』를 통해 홍보하였다. 영화제작을 시작하는 시기에 『동아일보』에 <애련송> 연재를 시작하고, 삽화 대신 영화 스틸사진을 실어 매일 극연의 영화를 광고 했다. 영화 봉절도 <애련송> 연재를 끝낸 다음 달로 정해 신문의 광고효과를 충분히 활용할 계획을 세운다. 그러나 의도와 달리 주연배우 이탈 문제로 2년 넘게 봉절이 미뤄지면서 화제성은 사라지고 잊힌 영화가 되고 만다. 두 번째 영화인 <도생록>도 재미와 의미를 갖춘 문예적 영화로 추진되었으나, 유치진의 시나리오를 둘러싼 문단 내의 갈등이 커지면서 연극인으로서의 유치진의 성과마저 흔들리게 되는 위기를 가져오게 된다.

극연의 영화제작은 직업극단, 전문극단으로 극연을 운영하기 위해 기획된 것이었다. 유치진은 공연 수익만으로 극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배우들을 영화에 출연시켜 경제적인 도움을 받고자 한다. 영화 출연으로 배우들의 얼굴이 알려지게 되면 극연 공연의 흥행에도

* 경북대학교 초빙교수.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자본이 개입되면서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나타나게 된다. 주목도가 높아진 배우들이 극단을 이탈하게 되고, 돈 문제로 인한 극단 내부의 갈등은 커진다. 많은 자본이 투자된 영화의 실패는 결과적으로 극단 운영마저 어렵게 했다. 이는 전문극단을 목표로 했지만 이를 추진하던 이들의 시각이 초기 극예술연구회 시기의 동호회 성격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생겨난 결과였다.

주제어 : 극연 2기, 극연 영화, <도생록>, 무라야마 토모요시, 신묘계기단, <애련송>, 유치진

1. 1937년 극연의 선택, 영화 제작

극예술연구회는 1931년 창립한 이후 진정한 근대극 수립이라는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활동을 전개해 나간다. 그러나 외부 상황의 악화로 이전과 같은 연극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면서 1935년을 기점으로 극연은 제2기적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기존의 소인극에서 연극전문극단으로 전진시키자는 것”¹⁾으로, “연극행동에 있어서는 이론보다도 실천이 앞서야 할 것이며 실천에서 이론이 라드 되어야 할 것”²⁾이라고 방향을 제시했다. 그리고 전문극단을 위한 실천으로 “종래 극연은 연 2,3회 공연으로써 만족하여 왔으나 금년(1936년)부터는 공연회수를 만히 하여 여름의 두 달을 제한 월1회 계획 즉 연10회”³⁾ 공연을 계획한다. 그동안 극연은 “한번 공연을 치르고 몇 달씩 쉬는 것이 전례였지마는 이번부터는 니어 다음 공연준비에 착수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통해 “자체의 기술적 역량도 기르려니와 연극애호들의 기갈을 되도록 나누어보기”⁴⁾ 위함이었다. 그리고 극연은 계획대로 1936년에는 연5회 10편의 작품을 상연하고, 1937년은 전반기에 4회, 5작품을 공연한다. 극연을 전문극단으로 전

1) 유치진, 「극예술연구회 第八回 공연을 앞두고(상)」, 『동아일보』, 1935.11.17.

2) 유치진, 「극문학계발의 두가지 과제」, 『동아일보』, 1935.1.8.

3) 서형석, 「창립 五주년을 맞이하는 극예술연구회 신방침」, 『동아일보』, 1936.1.1.

4) 서형석, 「창립 五주년을 맞이하는 극예술연구회 신방침」, 『동아일보』, 1936.1.1.

진시키겠다는 목표로 활발하게 공연활동을 전개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극연이 영화방면에도 진출하려 한다는 소문이 난다. “극연 정기총회의 토의사항에 “영화부 신설”이라는 항목⁵⁾이 걸렸다는 것이다. 이러한 소문에 대해 유치진은 극연이 연극에 방해되지 않는 한에서 영화 연구와 제작을 할 계획이라는 것을 직접 밝힌다.

기자 극연은 영화방면에 진출하려 한다는 말이 있으니 사실입니까.
유치진 네, 연극하는 방해되지 않는 한에서 영화의 연구와 제작
 까지도 하려합니다.⁶⁾

유치진이 영화제작 계획을 밝힌 데 이어 극연은 영화부를 조직하고 곧 바로 영화제작에 들어간다. 극연의 첫 영화는 1937년 『동아일보』의 현상 공모에 당선된 영화소설 『애련송』으로, 이효석이 시나리오 작업을 하고 김유영이 감독을 맡았다. 이어서 1938년에 유치진의 시나리오 <도생록>으로 두 번째 영화를 제작 상연한다.

이러한 극연의 영화제작은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나 극연의 영화제작을 가볍게 한 번 시도해 본 정도로 보기는 어려운 것이었다. <애련송>은 제작비가 2만원이 넘게 든 작품이었다는 점에서 당시에 화제가 되었다. “피땀을 무보수로 제공하고도 連次 결손에 부채가 6백원이나 되는⁷⁾ 상황이라며 극연의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면서도 한 편에 2만원이나 들여 영화를 제작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당시 영화 한 편을 제작하는 데 2만원을 들인다는 것은 당시로는 대단한 것이었다. “그 전에는 누가 필름을 사놔코 돈 몇 천원을 갖고 영화를 만든다면 그것이 조선영화계에 큰 소문이었⁸⁾을 정도였다는 언급을 참고하더라도 극연이 2만원을 들여 영화

5) 「풍문과 사실 극예술연구회」, 『동아일보』, 1937.6.24.

6) 「일대비약 앞두고 질적향상을 기도, 유치진씨 답」, 『동아일보』, 1937.6.24.

7) 「일대비약 앞두고 질적향상을 기도, 유치진씨 답」, 『동아일보』, 1937.6.24.

8) 서광재, 「연예계 회고(3) 영화계의 1년 발성으로 전환(하)」, 『동아일보』, 1937.12.18.

를 제작하기로 한 것은 극단의 사활을 건 중대한 선택이었음이 분명하다.

이러한 극연의 영화 제작은, 제작 당시에는 크게 화제가 되었지만 이후 극연에 대한 연구에서는 지워진 영역이 된다. 이는 유치진의 언급에서도 확인이 된다. 유치진은 『동량자서전』에서 극연좌 활동을 설명하면서 “극연 영화부에서 「크랭크인」 했던 동아일보 신춘문에 당선 시나리오, 최금동 작 「애련송」을 이효석 각색, 김유영 감독, 극연 회원들 총출연의 明治座 상영이 실패하여 서항석의 친구 김인주가 출자한 2만 2천원의 제작비마저도 건지지 못하는 불운을 맛보기도 했다”⁹⁾는 정도로 극연 영화부의 영화제작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다. 자신이 직접 시나리오를 쓴 <도생록>에 대해서는 언급조차도 하지 않았다.

극연의 영화제작에 대해 언급한 연구는 김성희의 「1930년대 극예술연구회 연구」¹⁰⁾이다. 김성희는 직업극단연극 전문극단으로의 길을 모색하고 있었던 극연이 공연시마다 누적되는 적자를 메꾸기 위한 타개책으로 영화제작에도 손을 댄 것으로 설명하였다. 그간 극연의 운영은 회원들의 회비와 방송취입비, 찬조원의 찬조금으로 충당해왔는데, <춘향전>과 <부활> 등 몇 공연을 제외하고는 결손을 보아왔고, 일제의 탄압이 가중되면서 심한 곤경을 겪어야 했기 때문에 전문극단으로 전향하면서 회원들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타개책으로 영화제작을 모색하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금출자자를 구하고, 극연 산하에 영화부를 설치(1937.10)하고, 『동아일보』 현상모집 당선작인 최금동의 「애련송」을 택해 제작에 착수하였으나 흥행에 실패하면서 운영자금을 확보하려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다고 영화제작과 관련한 상황을 소개하였다. 그러나 극연 활동을 사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영화제작을 간략하게 소개한 정도이며, 극연 영화에 대해 의미 있게 주목하지는 않고 있다.

9) 유치진, 『동량자서전』, 서문당, 1975, 194면.

10) 김성희, 「1930년대 「극예술연구회」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2, 53면.

이광욱의 「기술복제 시대의 극장과 1930년대 '신극'담론의 전개」는 유치진의 시나리오 <도생록>을 발표하면서 생긴 채만식과 유치진 그리고 조선일보 학예부 기자들 사이의 갈등을 언급하고 있다. 논문은 이들의 논쟁이 리얼리즘 논쟁의 연장선에 놓여있음에도 활자화된 텍스트의 영역을 넘어서 있으며, 갈등이 가장 격렬하게 표출되었던 계기에 영화라는 대상이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¹¹⁾ 그러나 논의의 중심은 극연의 영화가 아니라 극연을 중심으로 제기된 신극담론의 전개에 영화가 영향을 미쳤다는 정도이며, 극연이 제작한 영화는 논의의 밖에 있다. 이런 점에서 극연의 영화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아직 시작되지 않은 셈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은 극연의 영화 제작에 주목한다. 회원들의 회비와 몇몇 공연에서 얻은 수익 정도로 극단을 운영하던 극연이 영화부를 만들고, 2만원이 넘는 당시로는 엄청난 제작비를 투자하여 영화를 제작한다. 그것도 극연 구성원이 총 동원되어 영화제작에 나서는데, 이 같은 극연의 영화제작을 가볍게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극연은 왜 무리를 해서라도 영화 제작을 시도한 것일까. 극연의 영화 <애련송>과 <도생록>을 중심으로 극연이 구상한 영화가 어떤 것인지 살펴보고, 이러한 극연의 시도가 왜 실패하게 된 것인지, 그리고 이 실패가 극연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극연의 영화제작이라는 갑작스럽게 보이는 선택의 이유와 의미를 전문극단화를 위한 극연의 모색과 연관해서 읽어내고자 한다.

2. <애련송>, 통속적 내용과 예술적 표현

11) 이광욱, 「기술복제 시대의 극장과 1930년대 '신극' 담론의 전개」, 『한국극예술연구』 44집, 한국극예술학회, 2014.

2.1. 통속적 설정과 서정적 화면

극연의 첫 영화는 『동아일보』사가 이백 원의 상금을 걸고 시나리오를 공모하여 당선된 최금동의 “환무곡(幻舞曲)”을 내용에 부합하도록 제목을 바꾼 <애련송>이다. 최금동의 영화소설 「애련송」은 1937년 10월 5일부터 『동아일보』에 연재를 시작해서 12월 14일까지 총 50회에 걸쳐 게재된다. 그리고 「애련송」이 연재를 시작하자 극연도 영화 제작을 시작하고 신문 연재가 끝나는 다음 달인 1938년 1월에 봉절할 것을 계획한다.¹²⁾

<애련송>¹³⁾은 애절하고 슬픈 사랑이야기를 소재로 한 영화이다. 그러나 사랑이야기를 다룬 기존의 영화와는 다른 내용 전개를 선택하고 있으며, 절제된 언어와 영상미를 부각시키려 했다. 가장 독특한 부분은 악인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중심인물은 Y여자전문학교 음악과 학생인 안남숙과 청년음악가 이철민으로, 두 사람은 여름 방학기간에 몽금포 해변에서 처음 만나 서로 사랑하게 되고, 철민이 음악을 공부하러 일본에

-
- 12) 「본사당선 영화소설 『애련송』 촬영 개시, 『동아일보』, 1937.10.29. “극연영화부에서는 “애련송”을 전발성팔권물로 제작키 위하여 만반준비를 다하여 가지고 지난 23일부터 시내 명륜정 4정목 조선영화주식회사의 동소문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개시하였고 지난 25일 夜에는 평양 몽금포 등지를 향하여 로케이숀을 떠났는데 右地의 촬영이 끝나는 대로 다시 금강산으로 갔다가 11일 상순에는 우 동대문 스튜디오로 돌아와 동시녹음으로 세트촬영을 하여 11월 중에 완료하리라하며 봉절은 명춘 1월초에 하리라 한다.”
- 13) 『극예술』은 현재 1,2,4,5권이 전제되고 있다. 그런데 하동호의 『劇藝術』 6輯과 <애련송> (『고서연구 '87 - 한국고서동우회보 제4호』, 삼민사, 1987)에 『극예술』 6집의 내용과 <애련송>을 소개하고 있어 주목된다. 하동호에 의하면 “『극예술』 6집은 이 방면 연구자에게도 숙지되어 있지 않은 극예술연구회 기관지”로, “이효석의 말년의 작업인 시나리오 각색 <애련송>의 내용이 그 6집에서 소개되고 있다” 그는 『극예술』 6집은 타블로이드형 4면이며, “우연히 두 곳에서 손에 들어온 『극예술』 6집과 이효석 각색의 <애련송> 讀物用”을 공개하고 있다. 시나리오 <애련송>에는 극연 영화부가 “이 시나리오 오는 원 촬영용으로서의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까지 讀物的 성질을 가진 것이올시다. 다음 촬영개시 卽前에 정말 이 영화제작에 관계하실 분에게 또 다시 촬영용의 대본을 배분하겠습니다”라는 안내글과 함께 인물과 배역을 비롯한 시나리오를 공개하고 있다. 이 논문은 극연 구성원들의 영화에 대한 인식이 중심인 만큼 극연 영화부에서 공개한 시나리오 <애련송>을 대상으로 한다.

유학을 간 동안 남숙은 철민을 기다리기로 약속한다. 남숙의 아버지인 안영만은 청구학교 교장으로, 학교가 운영난으로 위기에 빠지자 어떻게든 학교를 구하기 위해 애쓰다가 병으로 쓰러지게 된다. 이러한 남숙의 아버지를 구해줄 수 있는 이가 청년 부호 강필호이다. 강필호는 이혼 한 후 새 아내를 물색하던 중 음악회에서 아름다운 남숙의 모습을 보고 한눈에 마음에 들어 하고, 청구학교에 대한 원조를 약속하며 남숙과 결혼하고 싶다는 뜻을 전한다. 아버지 안교장은 딸을 후취로 줄 수 없다고 반대하지만, 청구학교를 살리기 위해서는 남숙이 결혼하는 것밖에 도리가 없다고 생각하게 된다. 결국 남숙은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강필호와 결혼하기로 하고 철민에게 이별 편지를 보낸다. 이러한 전개는 통속적 이야기에서 흔히 활용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애련송>의 독특한 점은 인물 간 갈등으로 사건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선택을 한 데 대한 후회와 안타까움을 서정적 화면으로 담아낸다는 점이다. 결혼식 장면도 남숙의 처지에 대한 안타까움과 슬픔을 유도하기 위한 설정이다.

남숙의 동무인 조영자 김애라 정숙자 김명희 물려서서 수근덕거리다.

영자	원수 놈의 돈 때문에……
애라	사실 장하긴 해. -한 몸 희생해서 아버지 구하고 학교 살리구……
명희	사랑과 아버지, 몸과 학교……
영자	……대체 그이가 알면 어떻게 될가.
애라	아직 모르나

물을 뿌린 듯이 고요해지다.

결혼행진곡 엄숙하게 울리다.

신랑 신부 걸어들어온다.

한편 구석

애라 남숙이 얼굴 좀 보라.

명희 또 울었나 보구나¹⁴⁾

아버지를 위해 사랑하지 않는 남자와 결혼하기로 결정하기까지 남숙의 심리는 대사로 표현되지 않는다. 대신 쓸쓸하고 서정적인 배경을 통해 그녀의 심리를 유추하게 한다. 남숙이 결혼한다는 편지를 받고 철민이 결혼식장으로 찾아오는 장면도 급박하게 연출하지 않는다. 유학도 중단하고 남숙을 만나기 위해 결혼식장까지 찾아 왔으면서도 철민은 다급하지 않고, 결혼식을 중단시키려는 노력도 하지 않는다. 다만 벤치에 앉아서 하염없이 생각에 잠겨 있다가 천천히 결혼식이 열렸던 교회당에 찾아와 방명록에 서명을 하고 떠난다. 대사 없이 쓸쓸한 표정을 지어보이며 거리를 걸어가는 뒷모습을 통해 그의 슬픈 내면을 드러내 보여주려 하였다.

남숙은 결혼을 한 후에도 늘 슬픈 얼굴을 하고 있고, 필호는 남숙이 왜 그렇게 슬픈지 알지 못한다. 필호가 철민에 대해 알게 되는 상황도 별다른 대사나 갈등 없이 화면을 통해 인물의 심리를 드러낸다. 늦은 밤, 남숙은 자신의 방에서 조심스럽게 철민이 보낸 편지와 일기를 꺼내 읽으며 그를 그리워하고, 늦게 귀가한 필호가 남숙의 방에 들렀다가 그녀의 손에서 편지와 일기를 빼앗아 읽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장면에서도 큰 소리 한번 나지 않는다. 다만 필호는 “그것이 우울의 원인이이었었구려!”¹⁵⁾라고 한마디 하고는 우울에 잠길 뿐이다. 어긋나는 사랑과 결혼, 돈의 문제와 같은 통속적인 소재를 다루고 있지만 인물들이 전혀 통속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이는 남숙이 집을 나가 수도원으로 들어가 버리고, 신문에

14) 〈애련송〉, 『劇藝術』六輯과 〈애련송〉, 『고서연구 '87 - 한국고서동우회보 제4호』, 삼민사, 1987, 86면.

15) 〈애련송〉, 94면.

서는 백만장자 부인의 수수께끼 실종이라고 떠들어대는 상황에서 남편 필호와 철민이 만나는 장면에서도 잘 드러난다.

필호 사실이지 두 분의 관계를 진작 알았던들 결혼을 강행하지는 않았을 것이요. 반드시 사업과 사랑을 교환하려고 한 그런 타산적 인간은 아니었소. 설혹 남숙이가 아니더라도 난 청구학교 하나만은 키워 볼 작정이었고 그 증거로 앞으로 가지고 있는 전부를 학교에 받칠 생각이요. 그것이 남숙의 뜻을 이루워 주는 바도 될 것이니까.

철민 ……

필호 생각하면 이렇게 고요한 마음으로 당신을 대할 수 있는 것이 우습잔소. 칼부림이라도 할 처지에 이렇게 화목하게 앉아 있는 것이 생각할수록 웃으워요. 이것도 남숙이에게 대한 내 마음이 아직도 살아있는 탓인가도 합니다만……

말하는 필호의 표정. 서글프다.¹⁶⁾

철민의 대사처럼 칼부림이라도 해야 할 상황에서 그들은 고요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한다. 필호는 결혼 전에 철호의 존재를 알았다면 결혼을 강요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후회한다. 연적인 두 남자는 갈등하기보다 남숙에 대한 그리움과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낸다. 남숙이 실종되자 모든 인물들은 자신의 행동을 후회한다. 아버지는 자신이 결혼을 강요해서 딸이 불행해졌다고 후회하고, 필호 역시 결혼과 상관없이도 교육사업에 관심이 있어 청구학교를 살리려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남숙이 결혼한 이유를 알게 된 철민은 남숙이 있는 수도원으로 찾아가지만, 수도

16) <애련송>, 100면.

원에서 철민을 그리워하던 남숙은 이미 병이 깊어 결국 죽음을 맞게 된다.¹⁷⁾

<애련송>은 통속적으로 보일 수 있는 이야기 구도를 가져오지만 전혀 통속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드러낸다. 누구나 관심을 가질만한 내용을 활용하면서도 사건 전개에서는 관객의 예상을 깨며 아름답고 슬프게 드러내는 것, 이는 관객들이 흥미 있게 영화를 볼 수 있게 하면서도 의미 있는 영화라는 인식을 줄 수 있는 방식이 된다.

여기에 더해 영화는 아름다운 풍경들을 담는 데 많은 노력을 한다. “평양 대동강가의 고전색과 몽금포 해안의 우아한 사구와 금강산의 절승 이외에 경성 근처의 여러 경치와 창경원, 부호 고 김종익씨 저택(낙산장), 고 박영철씨 저택의 내부, 조선포텔, 부민관 천향원, 본사(동아일보) 강당 등에서 실지로 촬영하여 화면의 조선적 華美를 다한 데 있어서 첫 손가락에 꼽힐만한”¹⁸⁾ 화면을 담아 영상미를 추구한다. “종래의 조선영화는 기록영화적인 것이 많아 단지 조선의 농촌산촌의 참담한 생활을 그리기를 일삼은 것을 흔히 보겠으나 이 영화는 조선의 중류가정 이상의 고유한 정조 속에 극적사건을 발전시킨 데”¹⁹⁾ 특색이 있었다.

<애련송>은 통속적 내용을 예술적으로 드러내어 “영화의 너무나 흥행적인 추락을 연구극의 보조로써 막아 보자는”²⁰⁾ 새로운 시도를 영화의 방식을 보여주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17) 극연 영화부에서 독물용으로 소개한 <애련송> 시나리오에는 남숙이 핏기 없는 얼굴로 철민을 기다리고, 철민이 기차를 타고 수도원으로 가는 상황에서 끝이 난다. 그러나 『동아일보』에 연재된 최금동의 원작에서는 남숙이 병으로 죽고 난 후 철민이 수도원에 도착해서 슬퍼하는 것으로 끝이 난다.

18) 「본사의 제작 후원하에 극연영화 『애련송』 수 완성, 『동아일보』, 1939.6.25.

19) 「본좌 영화부 제일회 대작, 김유영 감독 작품, 정발성 <애련송>완성, 근근 전국일제봉절, 『극예술』 6, 1938.12.

20) 유치진, 「금년극계개관, 『조광』 26, 1937.12.(양승국 편, 『한국근대연극영화비평자료집』 13, 연극과인간, 2006, 108면)

2.2. 극연 회원 총출동과 『동아일보』를 통한 영화 홍보

<애련송>은 출연자와 영화 관계자가 “조선의 연극영화인을 망라하였을 뿐 아니라 일류문단인, 대학전문교수 신문잡지의 진보적 썸날리스트가 다수히 특별출연을 한 점”²¹⁾이 주목된다. “극계 영화계의 명류들과 극연회원이 총출연 하고 문단, 악단, 교육계를 論界의 남녀명사들이 찬조출연” 하여 “현 조선 문화인이 거의 회동하는 성관을 이룰 것이며 총출연 인원이 천여 명으로서 조선영화계 초유의 호화판”²²⁾이었다.

배역

이철민 : 김치근 안남숙²³⁾
 안영만 : 김일영 강필호 : 이웅
 송병희 : 이백수 천재일 : 송관섭 남 숙모 : 강정애
 철민동무
 동섭 : 윤방일 영호 : 신태선
 남숙 동무
 영자 : 김복진 애라 : 김연실 숙자 : 김여선
 명희 : 박정숙
 학교이사 : 서형석, 김진섭, 정연섭, 조희순, 김광섭, 이헌구, 함대훈,
 이하운
 신부 : 유치진
 수녀 : 김수임, 모운숙, 김갑순, 정덕인, 이만례
 의사 : 안복록²⁴⁾

21) 「본좌 영화부 제일회 대자, 김유영 감독 작품, 정발성 <애련송>완성, 근근 전국일제봉절」, 『극예술』 6, 1938.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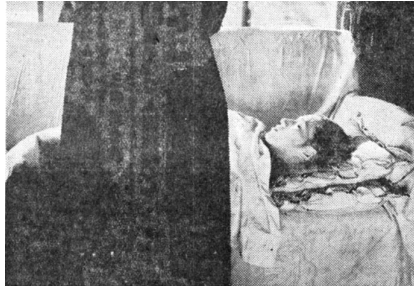
22) 「全發聲八卷物로, 극연회원 총동원, 주연은 문예봉과 김치근군, 『동아일보』, 1937.10.29

23) 안남숙 역할은 문예봉이 맡았는데, 극연 영화부가 공개한 시나리오 뒤에 실린 “스탤”에는 문예봉의 이름이 생략되어 있다.

24) 『극예술』 6, 104면.

<애련송> 촬영을 위해 극연 회원들이 총출동해서 했다. 주연은 당대의 최고 여배우 문예봉이 맡았다. 문예봉은 <애련송> 촬영 이전에 이미 9편의 영화에 출연할 정도의 스타였다.²⁵⁾ 문예봉을 제외한 출연진은 대부분 극연의 회원들이다. 이철민 역을 맡은 김치근은 극연의 젊은 배우였고, 강필호 역을 맡은 이웅은 극연의 대표적인 배우로 <토막>에서 명서의 역할을 맡았으며, <춘향전>에서는 변학도 역할을 맡아 호평을 받았던 배우이다.²⁶⁾ 극연이 영화 <애련송>에 얼마나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 극연 회원이 총출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항석과 김진섭, 정인섭, 조희순, 김광섭, 이현구, 함대훈, 이하운이 학교이사로 출연하고, 유치진은 신부 역 (<그림 1>)을 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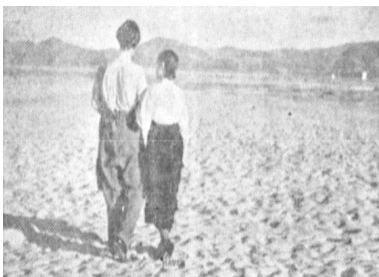
배우뿐 아니라 음악, 미술, 조명, 촬영, 의상, 자막 등이 모두 “期界의 권위자가 관여한 만치 그 진용의 정제(整齊)가 전례에 없다 할만”²⁷⁾한 팀을 구성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막강한 『동아일보』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았다. 극연이 영화를 제작하겠다는 계획도 『동아일보』 지면을 통해 처음 소개되었고, 영화를 제작



<그림 1> 수도원에서 병이 든 요안나(남숙)를 지켜보는 신부가 유치진이다.
(『동아일보』, 1937.12.9.)

- 25) 「스타의 기염(6), 그 포부계획 자랑 야심, 영화계에 전심 영화인 문예봉, 『동아일보』, 1937.11.30.
- 26) 「스타의 기염(1) 포부계획 자랑 야심, 연극10년 계획 연극인 이웅, 『동아일보』, 1937.11.23. 인터뷰 도중 과거의 맡은 역할 중 자랑할만한 것을 묻자 “토막”을 상연할 때 제가 명서의역을 하였는데 그때 관중은 숨을 죽이고 조용하게 듣고 있더군요. 그런 중에 누가 “그것이 조선의 현실이다”라고 소리를 친 일이 잊었습니다. 그때는 참 자기도 흥분되더군요. 그리고 남들은 “춘향전”에 변학도를 잘 하였다고 말”한다고 소개했다.
- 27) 『全發聲八卷』로, 극연회원총동원, 주연은 문예봉과 김치근 군, 『동아일보』, 1937.10.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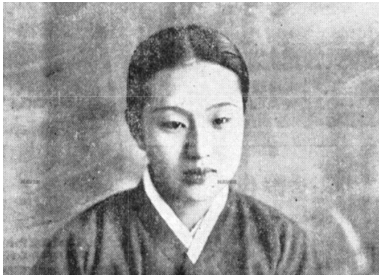
하는 시기에 『동아일보』 지면에는 최금동의 영화소설 「애련송」이 연재된다. 『동아일보』사는 “이백원의 상금을 걸고 종래의 이른바 영화소설의 새로운 형식으로서의 씨나리오 문학을 천하에 공모하여 얻은 신인 최금동의 역작”이라며 「애련송」을 소개하며, 1937년 10월 1일과 3일 이틀에 걸쳐 「애련송」의 연재를 예고한 데 이어 10월 5일부터 12월 14일까지 총 50회에 걸쳐 작품을 연재한다. 기존의 신문 연재물이 주로 삽화를 사용하였다면, <애련송>은 삽화가 아니라 극연 영화부에서 촬영한 영화 스틸 사진(<그림 1~5>)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직접적인 영화 홍보 방식이 된다. 신문에 연재된 스틸 사진은 실제로 제작중인 영화의 한 장면이기 때문에 독자들은 영화소설을 읽으면서 영화를 상상하고 기대하게 된다. 영화의 스틸 사진은 영화소설의 내용 전개와 연관되는 장면을 활용하지만 독자들의 관심을 고려해서 배치된 혐의가 짙다. 첫 회에서는 영화이 배경이 되는 몽금포 해변의 아름다운 풍경을 제시하고, 이후 연재분에서는 영화의 주요 장면들을 적절하게 배치해서 전체 영화에 대해 기대감을 유도하고 있다. 특히 남녀 배우의 얼굴을 클로즈업한 사진을 실는 경우(<그림 4~5>)가 많은데 이 같은 주연 배우들의 얼굴 사진은 연재된 영화소설의 내용과 관련이 적은 경우가 많아 마치 영화 광고처럼 보일 정도이다. 이는 영화에 대한 독자의 기대를 높이기 위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림 2> 4회에 삽입된 스틸사진
(『동아일보』, 1937.10.8.)



<그림 3> 49회에 삽입된 스틸사진
(『동아일보』, 1937.12.11.)



<그림 4> 38화에 삽입된 스틸사진
(『동아일보』, 1937.11.23.)



<그림 5> 3화에 삽입된 스틸사진
(『동아일보』, 1937.10.7.)

신문에 게재된 스틸 컷들을 보면 「애련송」을 연재하던 시기에 이미 영화의 상당부분은 촬영이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신문연재와 영화개봉 시기를 연계하려 의도한 것으로, 『동아일보』에 작품이 연재되는 시기에 영화 촬영을 진행해서 작품 연재가 마무리될 때 영화를 개봉하려 한다. 처음 계획은 1937년 12월까지 『동아일보』에 시나리오를 연재하고, 바로 이어서 1938년 1월에 영화를 봉절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차질이 생겨버린다. 바로 주연인 이철민 역의 김치근과 천재일 역의 송관섭이 출연을 거절하는 일이 생긴 것이다.

작년 연말—이 영화가 78분 완성의 域에 달하얏을 적에 주연자 김치근 외 1명의 연기자가 출연을 거절하고 따라서 극연에서는 금후 조선영화계에 상서롭지 못한 전례가 된다 하야 단연 이 사람을 제명시키는 동시에 동영화의 감독자인 김유영씨는 여러 가지 기술적 테크닉으로 주연자 업시라도 훌륭히 완성시키겠다는 것을 발표한 다음 애련송은 주연업는 영화로 제작이 계속되고 김치근은 비예술가적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는 비난을 받게 된다. 그리고 그동안 기술이 많이 발전했다고 해도 기술적 테크닉으로 주연배우 부채를 해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진행이 곤란한 형편이었다.²⁸⁾

주연배우가 출연을 거부하자 감독은 배우 없이 기술적 테크닉으로 영화를 완성하겠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기술로 주연배우 부재를 해결할 수는 없었다. “주연자를 예술가적 양심이 업고 단체의 규율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제명처분 시키자 제작 중의 영화는 미완성으로 할 일 업시 시일만 끌고 잇스므로”²⁹⁾ 유치진이 중재에 나서게 된다. 유치진은 “김군에게도 잘못은 잇섯스나” “그를 지도하는 사람들에게도 실책이 잇섯다는 것을 알게 되엇”고, “극연에서도 간부들끼리 모여서 상의한 결과 김군을 단체에 복귀시켜서 애련송을 완성시키기로 동의가 되엇던 차 김군도 자기의 잘못을 정식으로 사과해 왓스므로 근근 정식회의를 열고 복귀시키는 동시에 애련송도 속히 완성되도록 대책을 세울 터”³⁰⁾라고 입장을 발표한다. 그러나 김치근은 <애련송> 영화 촬영이 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조영의 영화 <무정>에 합류하기로 한다.³¹⁾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던 주연배우 문제는 시말서의 내용 때문에 또다른 갈등이 생긴 것이다. “복귀수속을 밟는 자리에서 단체의 규칙통제상 시말서가 잇서야 하는데 극단에서 제시한 시말서의 내용에는 전기 연기자를 출연 중에 유인했다는 평양의 이모와의 사실을 너허야 한다는 데 대하여 김치근 편에는 출연 거절 사건은 이모의 유인을 바든 것이 아니라 제작간부가 여러 가지로 너무나 지나치게 예술가의 기분을 아라주지 안흐므로 예술가로서 자신의 면목을 살리기 위하여 한 것”³²⁾이라며 거절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연배우 문제가 발생하면서 영화의 붕절은 미뤄졌고, “항간에서 시비를 거둬하여오든 이 영화의 주요 출연자 김치근, 송관섭도 원만한 해결 아래 복귀”³³⁾하면

28) 「제명, 복귀, 파란 중에 주연 일흔 『애련송』, 피차에 허물을 양해하고, 영화는 근근 완성하겠다고」, 『조선일보』, 1938.1.26.

29) 「복귀한 주연배우 시말로서 또 결별, 애련송 대단원의 풍파」, 『조선일보』, 1938.3.3.

30) 「유치진씨 담」, 『조선일보』, 1938.1.26.

31) 「조영의 제1회 작품 『무정』 근일 촬영개시」, 『동아일보』, 1938.3.19.

32) 「복귀한 주연배우 시말로서 또 결별, 애련송 대단원의 풍파」, 『조선일보』, 1938.3.3.

33) 「대망중의 극연 영화 “애련송” 근일 완성」, 『동아일보』, 1938.6.28.

서 1939년 6월 27일에 이르러서 겨우 명치좌에서 봉절된다.

다난한 조선영화계가 예정보다 많은 시일을 소비하기도 하였지만 이 작품이 원래 여간한 기구를 가지고는 한두달에 완성할 수 없으리만한 작품인만큼 의연 그만한 시일을 요했으리라. 더구나 양심적인 극연좌가 이 작품으로써 영화계에도 손을 뺄려는 의도에서 한 장면 한 컷도 함부로 하지 아니했다는 것은 특기할만한 사실이다. 따라서 비용도 막대하였고 비용이 막대하였는만치 그 성과가 우수하여 그동안 간접적으로 제작후원에 당한 본사로도 자신과 기쁨이 이 작품을 강호에 추천하는 바이다.³⁴⁾

『동아일보』는 마지막까지 영화를 소개하며 추천의 말을 하지만, 이미 <애련송>은 봉절이 미뤄지면서 화제성을 잃게 된다. 많은 영화들 속에서 특색도 희미해져버린다. 극연 영화부에서 제작에 착수하여 “삼년 묵은 애련송은 세인의 기억에서 사라질 정도였”³⁵⁾다는 『조선일보』 기사의 언급은 봉절 당시 영화 <애련송>의 위치를 잘 보여준다.

극연은 연극활동에서 얻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영화제작을 시작하고, 서항석이 재직하던 동아일보의 강력한 후원을 얻어 영화 <애련송>의 제작과 홍보를 병행해 나갔다. 특히 중요한 전략이 『동아일보』 지면에 시나리오 『애련송』을 연재하고, 바로 이어서 극연의 영화를 봉절해서 최고의 광고효과를 얻고자 했다. 그리고 기존의 영화들과는 다른 수준을 보여주는 영화를 제작해서, “영화의 흥행적인 추락을 연구극의 보조로써 막아보자”³⁶⁾고 계획하지만 영화 제작 과정에서 여러 난항을 겪으면서 봉절이 미뤄지다가 결과적으로 실패하고 만다.

34) 본사의 제작 후원하에 극연영화 『애련송』 遂완성, 『동아일보』, 1939.6.26.

35) 「극연영화부 『애련송』 녹음 개시」, 1939.4.20.

36) 유치진, 「금년극계개관」, 『조광』 26, 1937.12, 108면.

3. 문예적 영화 제작을 위한 모색, <도생록>

3.1. 흥미로 재구성된 현실문제

<애련송>이 예정했던 기간보다 제작이 길어지는 사이 유치진의 시나리오 <도생록>이 영화 제작에 들어가 1938년 4월에는 촬영을 완료하고 6월초에 봉절한다³⁷⁾ 그리고 『조광』 6월호에 <도생록> 시나리오가 발표된다. “극연에서는 “애련송” 봉절을 기다려 제2회 작품으로 유치진씨의 역작 “버드나무 선 동리의 풍경”을 각본촬영하리라³⁸⁾ 했다는 언급을 보면 <버드나무 선 동리의 풍경>을 영화하거나, <버드나무 선 동리의 풍경>과 같은 이야기를 다룰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도생록>의 이야기는 <버드나무 선 동리의 풍경>에서 딸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을 영화에 적합한 스토리를 구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강재봉 (50세. 대머리. 영건의 집 하인으로 늙었다. 주변성이 없다)

순 이 (그의 딸. 다행히 아주 憂鬱을 몰으는 18세의 처녀다)

최석주 (순이와 한 이웃에서 한 집안 같이 지내며 같은 공장에 다니다)

이영건 (40세. 돈 많고 지벌도 높다. 외면으로는 점잔으려고 뽐내나 그러나 철없고 죄없는 똥똥한 호한이다)

강의 처 (47,8세, 근면한 여자의 애처로운 데가 뵈다)

홍주사 (영건의 끈아풀)

계향이 (영건의 첩. 25세 기생출신. 고집이 세다)

골동품상, 중개인, 귀덕이네, 기타 영건의 친구, 우편배달부, 고물상,

37) 「경성영화과학공장작품 『도생록』 촬영진보」, 『동아일보』, 1938.4.28. 『매일신보』, 1939.5.13에는 이미 영화촬영이 완료되었으며, 6월에 봉절한다는 기사가 실려 있다.

38) 「기업가의 대진출로 다산될 조선영화」, 『동아일보』, 1938.1.3. 서광제의 「연예계회고(3) 영화계의 일년 발성으로 전환(하)」(『동아일보』, 1937.12.18.)에서도 극연 영화부의 <애련송>은 “1만 5천원의 거비를 드러 금년 내로는 촬영이 끝나 신춘에 봉절될 것이며, 그와 전후하여 제2회 작품을 극연에서 공연한 유치진씨의 창작 중에서 하리라 한다.

주객 등등 다수³⁹⁾

<도생록>의 주인공은 강제봉으로, 3대째 내려오는 영건의 집 하인이었으나 시대가 바뀌면서 영건의 집에서 쫓겨난다. 그러나 주변성이 없고 세상 물정에 어두워서 바뀐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할지 모른다. 그래서 날마다 영건의 집에 가서 시간을 보내며 밥이나 얻어먹으면서 사는 인물이다. 영건의 집 홍주사가 골동품을 좋아하는 영건을 속여 제 잇속을 차리는 인물이라면 재봉은 그럴 주변도 없는 무능하고 어리석은 성격이다. 3대째 영건의 집에서 종살이를 했으니 그가 선술집을 차릴 돈 5백 원 째는 줄 것이라는 실현 불가능한 기대를 하기도 한다. <도생록>에도 뚜렷한 악인은 없다. 영건은 게으르고 욕심 많은 인물이지 악인은 아니다. 홍주사와 계향도 영건의 옆에서 그의 돈을 탐내지만 순이 가족에게 나쁜 짓을 하지는 않는다. 순이를 불행하게 하는 것은 외부인들이 아니라 오히려 가족들로, 어리석은 욕심을 부린 부모가 딸을 불행하게 한다.

<도생록>은 행복에서 갈등으로 그리고 불행으로 사건이 진행된다. 시나리오 초반에는 가난하지만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을 살아가는 가족의 모습을 보여준다. 강제봉은 무능한 인물이지만 딸에 대한 애정은 각별하다. 영건이 남긴 밥을 얻어먹으면서도 딸 뽀뽀 반찬을 먼저 챙기고, 우연히 생긴 돈으로는 순이의 고무장화를 사고 순이가 비 맞지 않게 우산을 들고 공장으로 마중까지 간다. 순이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공장에 다니지만 같은 공장에 다니는 이웃에 사는 석주와 연애를 하며 행복해한다. 두 사람을 결혼까지 약속한다. 그러나 순이의 불행은 영건이 가짜 골동품 사는데 많은 돈을 쓰는 것을 반대하던 첩이 쫓겨나면서 시작된다. 첩을 내쫓은 영건은 어리고 착하고 인물 좋은 것을 새로 들일 생각을 하고 우연히 한 번 본 순이를 떠올리며 홍주사에게 부탁한다. 이에 홍주사가 재봉

39) <도생록>, 『조광』, 1938.6.(양승국 편, 『한국근대희곡작품자료집』 8, 아세아문화사, 1989, 40면)

을 설득한다. 처음엔 반대하던 재봉이 순이를 첩으로 주는 게 영건의 집을 구하는 것이라며 설득하자 바로 승낙해버린다. 명분은 상전 집도 피고, 딸도 편안하게 될까 해서라고 하지만 실상은 부모의 욕심 때문에 딸을 파는 것에 다름 아니다.

처 그런 소갈찌 없는 소리 말구 그저 눈을 질끈 감으래두. 너 만 응하믄 우린 살아나는 판이다. (천원 지폐를 들어 보며) 이걸루 단박 선술집 하나 내서 우린 의젓하게 살 수 있잖 니? 그나 그뿐이나? 그 댁 재산이 모두 우리 해다.

강 여보 우리가 재산을 먹자구 딸을 줄려는 거유? 순이가 가 른, 그 영감댁 형편도 피구 그 덕으로 애두 좀 편안하게 될까 해서 권하는거지.

처 ……

강 …… 순아, 이 애빌 보렴. 요즈막 시절이 바뀌어 그 댁에서 쫓겨난 후로는, 이 애비라는 건 손에 배운 직업 없구 몸에 지닌 것 업수 의지가지할 자식조차 없으니 걸어갈 길이 막연하구나. 너마저 또……⁴⁰⁾

딸은 이미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있는데 나이 많고 첩까지 내친, 고약한 상전의 첩으로 팔려 가라고 부모님은 강요하고, 이에 순이는 굶어 죽어도 좋다며 거부한다. 그러나 어머니는 천덕꾸러기 노릇을 해도 굶주리는 것보다 낫다며, 영건이 준 돈 천원을 보이며 선술집을 내서 의젓하게 살 수 있다며 설득한다. 무능한 부모를 대신해서 순이가 집안의 경제적 면을 책임지고 있는데 시집을 가버리면 부모는 생계가 막막해지게 되는 것이다. 아버지 재봉은 “요즈막 시절이 바뀌어 그 댁에서 쫓겨난 후로는 이 애비라는 건 손에 배운 직업 없구 몸이 지닌 것 없구 의지가지할 자식

www.kci.go.kr

40) <도생록>, 49면.

조라 없으니 걸어갈 길이 막연”하다고 부탁하고, 순이는 백발노인이 된 아버지 어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영건의 집에서 조식을 구걸하는 환상을 보고는 아버지 말대로 하기로 결정한다. 그러나 석주가 죽어도 안 된다고 분노하자 순이는 괴로움에 힘들어한다. 부모님의 말을 따르자니 석주가 걸리고, 그렇다고 부모님의 말을 거부하고 석주를 선택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순이는 편지를 쓰고 집을 나간다.

아버지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이제와서 제가 영 헌데 못 가겠다고 할 수도 없구 그렇다구 집안 형편을 생각하면 석주허구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차라리 이 목숨을 끈어 부모헌데 대한 불효의 죄, 약혼한 석주에게 지은 죄, 영감에게 대한 죄—이 세 가지 죄를 사할까 하나이다.⁴¹⁾

부모의 욕심 때문에 순이는 죽을 결심을 한 것이다. 여기에서부터 사건 진행은 빨라지고 더 강하고 자극적인 사건들이 계속해서 나열된다. 죽은 줄 알았던 순이는 선술집을 차릴 수 있는 돈을 보내오고, 순이 부모님은 소원하던 선술집을 차리고 ‘의젓’하게 살게 된다. 그러나 여기에서부터 순이가 무엇을 해서 돈을 마련했는지에 대한 긴장감이 형성되고, 우연히 선술집에 들른 술꾼의 말을 통해 순이의 처지에 대한 불안이 발생한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순이와 같은 공장에 다니다가 평양으로 팔려간 애가 석조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순이가 청루에서 일한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된다. 그리고 다음 장면에 평양의 청루에서 교태를 지으며 손님을 유인하는 순이를 보여주어 충격과 안타까움을 준다. 그제야 부모는 자식의 목숨 값으로 선술집을 차린 것을 알게 되고,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돈을 마련하려 하지만 실수를 되돌릴 수 없어 절망하고, 급기야 전당포에 들어가서 돈을 훔친다. 딸을 구할 수 있다는 기대를 안고 숨을 거두는 순간에도 유치진은 마지막 반전을 배치한다. 목숨을 걸고 훔쳤던 것이 돈이 아니라

41) <도생록>, 51면.

겨우 신문지 뭉치었다는 것이다. 이 사실을 모르고 평화스러운 얼굴로 숨을 거두는 재봉의 모습과 비극적 결과가 대비되면서 관객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주려 한 것이다.

<도생록>에서 유치진은 계속해서 사건을 만들고, 또 상황을 반전시킨다. 사건이 진행될수록 인물들은 불행해지다가 결국 파국에 이른다. 그리고 마지막에 서로를 위하는 애뜻한 마음이 드러나도록 배치하여 안타까움과 눈물을 유도한다. <도생록>은 가난하지만 따뜻하게 살아가던 가족이 가난 때문에 딸을 돈 많은 집에 팔려고 한 선택이 가져온 비극을 다룬다. 결혼을 약속한 남자가 있지만 가난한 부모에 대한 걱정 때문에 자신을 희생하는 딸과, 자신의 욕심 때문에 불행해진 딸을 구하고자 애쓰다가 죽어가는 아버지의 선택을 통해 감동의 정서를 만들어내려 하였다. 관객의 흥미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여러 사건과 반전의 상황을 배치하고, 관객의 감정을 자극하기 위해 아버지와 딸이 서로를 위해 희생하려는 마음을 부각시켜 보여주려 한 것이다.

그러나 관객의 감정선을 우선으로 고려하는 과정에서 극의 개연성은 무너지게 된다. 딸을 아끼던 강재봉이 영건의 첩으로 주기로 결정하게 되는 과정은 갑작스럽고, 딸을 아끼던 부모가 딸의 행복보다 자신들의 생계 문제만 생각하고 딸의 불행을 강요하는 것도 자연스럽지 않다. 또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영건의 첩이 되면 천원을 받을 수 있는데도 5백원을 받고 청루에 몸을 파는 선택을 하는 것도 의문이 남는다.⁴²⁾ 그 선택이 부모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할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알고 있을 텐데 부모님을 위한 효심 깊은 선택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물론 영건의 첩이 되는 것은 석주에게 상처가 되는 선택이기 때문에 석주를 배려한 행동으로 볼 수는 있으나 결과적으로 모두를 상처 입히는 선택이 되고 말았다. 이는 개연성보다는 관객에게 흥미 있는 사건을 만들어내고 관객에게 심리적으로 강

42) 이 문제에 대해서는 채만식이 강하게 지적한 바 있다. 채만식, 「문학과 영화 그 실천인 『도생록』」, 『조선일보』, 1938.6.17~18.

한 효과를 주기 위한 전략 때문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흥미위주의 전략은 극의 주제와 문제의식에서 문제를 가져 오게 된다. 즉 <도생록>이 부모의 어리석은 욕심과 자식의 잘못된 효심이 가져온 비극으로 보이게 하는 문제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석주는 딸을 첩으로 팔려고 하는 강제봉 부부에게 분노하고 “순일 죽인 건 아저씨 아주머니의 그 노예근성이야. 그 더러운 노예 근성”이라며 분노하다. 이렇게 되면서 분노해야 할 대상이 늙고 가난한 부모에게 향하게 될 수 있다. <버드나무 선 동리의 풍경>에서는 딸을 팔 수밖에 없는 가난의 원인이 가족들의 게으름이나 무능에 있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뜻없이 자식들을 잃게 하는 게 무엇인지 알아보겠다는 어머니들의 분노에 공감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도생록>에서 불행의 원인은 부모의 무능과 그들의 이기적인 욕심에 있는 것으로 보이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불행의 원인은 못난 부모가 되고, 그런 못난 부모를 살리겠다고 자신을 희생하는, 심청과 같은 옛날이야기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3.2. 읽는 영화를 위한 문학적 고려

<도생록>의 또 다른 특징은 영화 소설 혹은 읽는 영화를 위한 문학적인 측면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장면은 지시문 사용에서 잘 드러나는데, “떡물을 뿌린 듯 흐린 하늘엔 어느 새 조그마한 틈이 생겼다. 그 사이로 새파란 창공이 얼굴을 내민다. 은빛 햇살이 퍼진다. 천상에선 시원한 음조까지 들리는 것 같다”고 제시해서 비가 갠 하늘을 설명하면서도 순이와의 행복한 미래를 상상하는 석조의 심리도 드러냈다. 그러나 이를 영상으로 담아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내온싸인은 행복스런 춤을 춘다.

강은 묵묵히 섰다가 구할 수 없는 한숨을 쉰다.

흔들리는 나무. 바람이 인다.

문득 그의 머리에는 시킴언 그림자가 숨어든다.

별안간 폭풍우 같은 음향이 가슴을 뒤흔든다.⁴³⁾

네온사인이 행복스런 춤을 춘다는 것이나, 머리에 시킴언 그림자가 숨어든다는 것은 소설의 서술이다. 그러나 유치진은 자신 때문에 불행해져 버린 딸 때문에 의식이 혼란스러운 강재봉의 심리를 드러내고, 그가 갑자기 전당포를 털기로 결심하게 되는 과정을 “머리에는 시킴언 그림자가 숨어든다”는 것으로 표현했다. 그러나 이는 영화화 하기에 쉽지 않은 표현이고, 이같이 영화적이지 않은 문학적인 서술은 영화를 잘 모르는 문인 출신의 한계를 보여주는 표현으로 지적받게 되는 여지를 만들어냈다.

서광제는 「문예작품과 영화-오리지널 씨나리오 문제-」에서 “오리지널 씨나리오는 문예작품도 아니며 문학도 아니”며, “다만 영화촬영을 위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쓴 영화각본”이라며, “씨나리오가 문학이 된다면 영화의 패배이며 문학이 씨나리오의 가까워진다면 문학의 패배”⁴⁴⁾라고 하며, 유치진의 <도생록>을 예로 든다.

강은 조수에 밀린 나무토막 같다. 등겨같은 가랑비가 안개같이 언덕을 추기고 있다. 물물을 뿌린 듯이 흐린 하늘엔 어느새 조그마한 틈이 생겼다. 그 새로 새파란 창공이 얼굴을 내민다. 은빛 햇살이 퍼진다. 천상에선 시원한 음조까지 들리는 것 같다. 나뭇잎은 돌이 히롱하며 밍살스럽게도 자유롭게 두둥실 더 간다. 태연할손 산색이요 들니나니 물소레다.

이것은 시나 시조라면 잘 되었다고 할지 몰나 이러한 시나리오 더구나 오리지널 씨나리오가 세상에 어디 잇는가?

또 어느 때는 이러한 문구도 있다. “비스듬한 일각문까지 더 끌어저보 임은 웬일일고?”라는 의문부까지 붙인 문구가 있으니 씨나리오가 건축의

43) <도생록>, 56면.

44) 서광제, 「문예작품과 영화-오리지널 씨나리오 문제-」(2), 『동아일보』, 1938.10.30.

설계도와 같다면 의문부 붙은 설계도를 어떻게 건축기사들이 집을 진단 말인가? “씨나리오 도생록의 스토리의 비현실성을 일일이 적발할 필요와 시간이 없다. 그것은 너무나 영화를 모르고 현실을 모르고 쓴 까닭이다”⁴⁵⁾

서광제는 시나리오에 영화제작에 필요한 정보가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유치진이 <도생록>에서 문학적 표현을 사용한 것은 영화를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폄하한다. 이를 통해 영화를 잘 모르는 문인출신이 갖는 한계, 미숙함으로 지적하여 문인들의 영화 진출에 대해 경계하려는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도 보인다. 하지만 유치진과 극연은 시나리오를 영화 제작을 위한 대본으로만 생각하지는 않았다. <애련송> 시나리오도 “讀物的” 성질을 가진 것으로 소개하였으며, <도생록>도 영화가 봉철되기 전에 잡지에 시나리오를 소개해서 독자들이 읽도록 하였다. <애련송>이나 <도생록>의 경우는 단순히 영화에 종속되는 대본이기라기보다 읽는 영화로서 문학적인 성격도 강하게 드러난다. 그러나 이런 측면은 영화계에서는 영화를 잘 모르는 미숙함의 근거가 되었고, 문단측에서는 개연성 없이 사건의 연속과 반전을 거듭한다는 문제를 지적받게 된다.

작자의 지성의 빈곤에서 유래한 듯싶은 작품의 예술적 성격의 결핍,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집어다 스고는 돌아보지 않은 무책임한 용어와 문장, 그리고 이미 주어진 바 인물의 성격과 결정된 현실을 무시하고서 다만 극적 싸인을 장만하기 위한 스토리의 무리 강조와 이 스토리의 무리로 해서 장면마다 바꾸는 인물의 성격(으로 해서 성한 사람이 미친 놈이 되고 미친 놈이 성한 사람이 되고), 잔실로 유감없이 원만하게 문학가치 제로인 것이 시나리오 「도생록」이다.⁴⁶⁾

45) 서광제, 「문예작품과 영화-오리지널 씨나리오 문제-」(3), 『동아일보』, 1938.11.1.

46) 채만식, 「문학과 영화, 그 실천인 『도생록』」(1), 『조선일보』, 1938.6.16.

<도생록>을 통해 읽는 시나리오, 문학적인 시나리오, 흥미있는 영화를 만들어 보겠다는 유치진의 의도는 결과적으로 문단과 영화계 양쪽 모두로부터 비난을 받는 결과로 이어졌고, 신극계의 대표적인 극작가로 인정받았던 유치진은 지면을 통해 공개적으로 폄하와 무시를 당하는 충격을 경험하게 된다.

4. 극연의 영화제작, 전문극단에 이르는 길 : 결론을 곁해서

극연의 영화제작은 그동안의 극연 연구에서 간과되었던 영역이다. 흥행에도 성공하지 못했고, 문단이나 영화계 양쪽에서 모두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극연의 영화제작을 어쩌다가 한 번 도전해본 경험 정도로 간과하게 되면 1930년대 후반, 극연의 활동이 위축되고 극단 내부의 갈등이 이어지다가 활동이 중단되는 과정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게 된다. 사실 극연의 영화제작은 1937년에 갑작스럽게 선택한 것이 아니라 1935년 유치진이 1년의 일본체류를 마치고 귀국한 이후 극연의 방향전환을 주도하며 연극전문화를 내세우며 전문극단, 직업극단의 방향으로 극연의 방향을 전환하던 그 시기 전문극단의 방향에 이미 포함된 계획의 일환으로 보인다.

1935년을 기점으로 한 유치진의 극연 2기에 대한 구상은 일본 신교계키단(新協劇團)의 활동에서 영향을 받는다.⁴⁷⁾ 유치진은 1934년 4월부터 1년간 일본에 체류하면서 일본 신극의 변화를 목격하게 된다.⁴⁸⁾ 1930년대 중

47) 이정숙, 「일본의 「신협극단」이 「극예술연구회」에 미친 영향」, 『어문학』 98집, 한국어문학회, 2007 참조.

48) 이 시기 유치진의 고민은 김재석의 「유치진의 도쿄구상 실천과 극예술연구회의 <포기>」, 『한국극예술연구』 55집, 한국극예술학회, 2017과 「삼·일극장의 <빈민가> 공연과 유

반의 일본 신극계는 현실적 상황 악화로 인해 프롯트(プロット)와 같은 좌익연극을 하는 것은 불가능했고, 쓰키지소극장(築地小劇場)과 같은 신극은 관객들의 외면을 받는 상황이었다. 무라야마 토모요시(村山知義)는 이 같은 상황을 ‘신극의 위기’로 파악하였고 기존의 신극과는 다른 연극을 모색한다. 그 결과 신극대동단결을 통한 전문극단 신교계키단의 결성으로 구체화된다. ‘신극의 존재가치는 관객에 추수하지 않는, 진보적이고 예술적으로 양심적인, 연출상 통일성 있는 연극을 창조⁴⁹⁾하는데 있다는 무라야마 토모요시의 신극대동단결 제창은 프롯트의 해산으로 약체화하고 있는 여러 극단으로부터 일류배우를 픽업해서 배우중심의 단일극단을 만들고, 그 주변에 극작가클럽 등의 부문별 전문가의 섹션을 마련하여 그 전체가 일본신연극협회로 일컬어지는 전문극단 신교계키단의 결성으로 구체화된다.⁵⁰⁾

신교계키단이 전문극단이라는 방향을 선택하게 된 것은 외적 상황의 악화도 원인이지만, 신극에 대한 관객들의 부정적 인식 또한 영향을 미친다. ‘신극적’ 혹은 ‘소극장적’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무언가 불쾌하게 느끼는 것이 당시 신극에 대한 관객들의 일반적인 생각⁵¹⁾이었고, 신교계키단은 관객과 유리된 연극이 아니라 관객들이 원하는 바를 반영한 연극을 창작하기로 방향을 정한다. 극단이 경제적 자립을 통해 전문극단화 되어야 흥행극에 대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고, 관객들에게 재미있으면서도 제대로 만든 연극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파악했기 때문이다. 신교계키단은 배우중심의 극단을 지향하였으며, 직업극단을 표방한 만큼 정기공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월 상설공연을 하고, 어느 정도의 수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극장 진출하려 했다.⁵²⁾ 무라야마 토모요시는 특히

치진의 도쿄 구상, 『국어국문학』 제176호, 국어국문학회, 2016 참조.

49) 村山知義, 『新劇の再建』, 弘文社, 1947.

50) 祖父江昭二, 「新協劇団-補・戦時下の動き」, 諏訪春雄・菅井幸雄 編, 『近代の演劇』 2, 勉誠社, 1996 참조.

51) 松尾哲次, 「感想と創造の可能性について」, 『月刊 新協劇団』 16号, 1936.9.

극단원들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한다. 그러나 연극공연의 수익만으로 단원들에게 월급을 주는 것은 불가능했고, 이에 대한 방편으로 매두된 것이 바로 영화였다.

1936년도

월급제도

정말로 좋은 연극을 하기 위해서는 전 생활이 연극에 전념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를 위해서는 생활비를 연극에서 얻지 않으면 안 된다. 신교계기단은 그렇기 때문에 결성 당초부터 직업극단이 되는 것을 목적의 하나로 했다. 가까스로 창립 1주년에 월급을 전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 돈은 그러나 아직 순수하게 연극에서 얻은 돈은 아니다.

토키(발성영화)에서 나온 돈을 기초로 해서, 그것에 본홍행과 특별홍행의 이익을 가산한 것이다. (중략) 신극은 도저히 직업화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또 영화에서 돈을 받기 때문에 반대로 신극이 여기(餘技, 취미)가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이들이 기우였던 것은 현실에 증명되고 있다. (중략) 나는 지금까지 보다 더욱도 좋은 연극을 창조하는 조건의 하나를 만족시키는 월급제도의 확립을 기뻐한다. (1월)⁵²⁾

무라야마 토모요시는 신교계기단을 직업극단으로 운영하고자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배우들이 연극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생활을 보장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PCL과 손잡고 극단의 배우를 PCL의 스크린에 출연시켰다. 이는 경제적인 이유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영화를 통해 배우를 관객들에게 소개하기 위함이기도 했다. 이렇게 되면 배우의 가치는 높아지고 배우를 보기 위해 관객들이 신극장으로 오게 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이다. 이는 영화의 예술적인 완성도를 높여주는 부차적인 결

52) 신교계기단의 활동에 대해서는 이정숙의 「일본의 「신협극단」이 「극예술연구회」에 미친 영향」 참조.

53) 村山知義, 『新劇の再建』, 100-101면.

과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무라야마 토모요시가 극단원들을 영화에 출연시킨 데는 경제적 문제만이 아니라 가장 대중적인 예술 형식인 영화의 기술을 획득하려고 하는 목적도 있었다. 그래서 신쿄게키단이 자체적으로 영화를 제작하겠다는 계획의 일환이기도 했다. 무라야마 토모요시는 <눈사태>(PCL, 1937), <신센구미>(PCL, 1937), <지평선>(다이토, 1939)의 시나리오를 쓰고, <연애의 책임>(PCL, 1936)과 <첫사랑>(도호, 1939)에서 감독을 맡는다.⁵⁴⁾ 무라야마 토모요시에게 영화는 경제적인 측면을 해결하는 수단일 뿐 아니라, 극단을 대중에게 알리고 많은 대중관객층을 획득할 수 있는 수단으로 중요했다. 그에게 영화는 일본 신극이 처한 위기를 건널 수 있는 중요한 방편으로 모색된 것이다.

유치진은 신쿄게키단의 이러한 행보를 잘 알고 있었고 이를 펍 긍정적 인 것으로 평가한다.

가진 각색의 그 경향 중에서도 나는 대별하여 두 가지의 경향을 그들 가운데서 적출해볼 수 있다. 그것은 “연극의 대중화를 목표로 한 것”과 “소수 연구자를 위한 것” 두 가지 경향이 그것이다.

이 전자에 속하는 것으로 우리는 신흥극단을 들 수 있다. 이 극단은 일방 PCL이란 영화제작사와 결탁하여 자기의 배우를 PCL의 “스크린”에 출연시키고 있는데 이 의도는 배우의 생활비를 (신흥극단의 공연으로서는 배우의 생활보장을 해낼 수 없으니까) 위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은 그보다도 오히려 신극의 배우를 “스크린”의 힘을 빌려서 대중 앞에 소개해서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친하게 해달라는 의도인 듯하다. 즉 배우를 선전하기 위한 것이다. 이 의도는 종래의 신극배우가 너무나 연구실에만 앉드려 잇는 관계로 대중과의 교섭이 없고 친면이 없는 데서 나온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예술(신극)은 일반연극대중에게는 언제나 생소한 감을 줄

54) 무라야마 토모요시의 영화에 대해서는 이정옥, 「무라야마 토모요시 감독 〈연애의 책임〉(1936)과 장르의 횡단」, 『현대영화연구』 19호, 한양대학교 현대영화연구소, 2014 참조.

뿐이었다.

여기에서 신협극단은 제 일단적으로 “스크린”을 빌려서 자기의 연기자를 일반 팬에게 소개하여 배우의 시장가치를 한층 올리는 동시에 연극대중의 예술적 향상을 도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에 대한 궁극의 방향은 상업주의에 입각한 대극장연극으로의 변모에 있는 것이 아닐까 한다.(중략)

결국 신협극단의 이 방향은 그들이 갈수록 경제적으로 궁해가는 소극장운동의 몬지를 털어서 연극으로 하여금 전문적 연극인에게 한 직업을 만들어주는 동시에 신극을 사회의 전면에다가 내세워서 가부키무대의 뒤를 이어 국극수립의 장래를 목표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의도는 연극이 군집의 저급한 취미에 영합하라는 비속극에 빠지지 않는 한에서는 꼭 진보적 활동이라고 보겠다.⁵⁵⁾

유치진은 신교계기단의 영화제작이나 신교계기단 소속 배우들이 영화에 출연하는 것에 대해 “신극의 배우를 “스크린”의 힘을 빌려서 대중 앞에 소개해서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친하게 해 달라” 것으로 파악하며, 스크린을 빌려서 자기의 연기자를 일반 팬에게 소개하여 배우의 시장가치를 한층 올리는 동시에 연극대중의 예술적 향상을 도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유치진은 극연이 기존의 아마추어적 태도를 버리고 전문극단으로 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극단의 경제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았고, 대극장에 진출하여 많은 관객을 동원하고 상설공연을 하는 것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그러면서 영화제작도 모색한다. 극연의 영화제작은 전문극단을 위한 극연의 경제적 토대 마련을 위한 것이었다. 극연의 배우들을 영화에 출연시켜 관객들에게 알리고, 이를 통해 영화의 관객을 극연 연극의 관객으로까지 확장하려는 의도가 포함된 것이다. 또 영화 출연이 배우들의 경제적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55) 유치진, 「동경극단전문초, 일본 신극운동의 현상과 그 동향(2)」, 『동아일보』, 1935.5.14.

판단했을 것이다. 특히 <애련송>의 경우 극연 회원이 총출동하여 영화에 출연하는 것은 스크린을 빌려서 극연의 회원을, 특히 배우들을 소개하려는 의도이고, 또 배우들이 연극을 직업으로 삼아 매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방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영화의 흥행적인 추락을 연구극의 보조서 막겠다는 것을 명분으로 제시한다.

연극과 영화의 합작

극연서 영화부를 두고 영화제작을 시작한 것은 금년극계의 토착이다. 위선 연극과 영화가 상부상조하야 연기수준을 향상해보자는 것 그리고 경제적으로 궁한 연극이 영화의 이윤으로써 보다 더 양심적인 일을 해보자는 것, 영화의 너무나 흥행적인 추락을 연구극의 보조로서 막아보자는 것 등이 연극과 영화의 합작에서 문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믿는다. 이 극연의 방침은 연래의 연극운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할는지 많은 관심을 오인에게 가지게 함은 사실이다.⁵⁶⁾

그러나 유치진의 바람과 달리 거금을 들인 영화 제작이 지연되면서 제대로 개봉도 하기 전에 이미 “삼년 묵은 영화”⁵⁷⁾로 세인의 기억에서 사라질 정도였으며, 또 야심차게 발표한 시나리오는 문단측과 영화계 모두의 비난을 받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여기에 더해 극연좌로 전환하면서 결과적으로 직업극단화가 되어버렸고 단원들에게 월급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경제적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심화된다.

그런데 요즘 경부선 방면 순연을 마치고 돌아온 동 극단은 지난 사일 오후 두시에 시내 장곡천정 회관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동극단의 간부 여 배우인 김영옥씨를 제명처분을 하고 이서향, 이화삼씨 등을 비롯하여 중

56) 유치진, 『금년극계개관』, 『조광』 26, 1937.12. (양승국 편, 『한국근대연극영화비평자료집』 13, 108면)

57) 『극연영화부 『애련송』 녹음 개시』, 『조선일보』, 1939.4.20.

요간부가 단연 연배 사직을 하여 일대 파란을 일으켰다. 이상과 가튼 결과에 이르기까지의 대강 경위를 들으면 첫째는 극단대표 모씨에 대한 불신임이 중요한 원인이고 다음으로 경리방침에 대하여 애매한 점이 있었다는 이유로서 한 것이라 한다.⁵⁸⁾

남아있는 간부의 한 사람인 유치진씨는 아래와 같이 말한다.

「김영옥이 제명된 이유는 (중략) 극단의 경리나 운전방침을 이해 못하는 일부분의 불평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복조선에 가서도 일부분의 간부들은 다수한 이익을 보고 온 것 가치 생각하고 있는듯하나 사실 육칠백원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번 남조선순회에도 오륙백원이나 떨어졌스리라고 알고 있는 듯하나 사실 알고보면 지금 일백 칠십오원이나 역시 적지 안흔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동안 지방순회를 하는 동안에 천여원이나 되는 부채를 지게 되었지요. 그리고 또 서항석씨에 대해서 불신임안을 제출하고 서씨의 경리내용을 일부분에서는 자못 의심스럽게 생각하고 분개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 듯하나 사실 서씨야말로 애매하고 어긋합니다. 이것은 조금도 내가 서씨를 두둔해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만 오직 생사를 우리 극연좌와 가치 하겠다는 서씨인만큼 누구보다도 서씨는 극연을 위해서 노력하고 한 푼이라도 아끼어 쓰려고 하는 분입니다. 그저 한말로 말하면 극단에 돈이 엷는 탓이겠지요. 지금이라도 한천원쯤 잇서서 여기저기 빚이나 다 갚고 밀린 세금이라도 다 납부한다면 지금과 가튼 이러한 극단 내부의 시끄러운 일도 자연 소멸되리라고 믿습니다.⁵⁹⁾

극연좌로 전환하면서 직업극단이 되었지만 공연 수익으로 단원들의 월급을 제대로 줄 수 없었고, 이에 대한 단원들의 불만이 터진 것이다. 영화

58) 「기로에선 극연좌, 대극장진출을 앞두고 “제명”“해직”의 내분, 극단전향 일년여에 벌써 난항」, 『조선일보』, 1939.6.8.

59) 「사직업원의 구실은 전연무근한 오해, 잔여간부의 一人 유치진씨 답」, 『조선일보』, 1939.6.8.

제작 실패는 극연좌의 갈등과 경제적 문제를 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유치진은 극연을 전문극단으로 운영하고자 했으나, 그 스스로도 초기 극예술연구회시절의 동호회적 시각에 머물러 있었다. 극예술연구회시절의 극단 구성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감수하면서도 신극 수립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노력해 왔던 것처럼 극연좌의 단원들도 따라와 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영화로 이름이 알려진 배우는 극단을 위해 희생할 생각이 없었고, 지방 순회공연까지 다녀왔는데도 제대로 돈을 지급하지 않는 데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탈퇴를 선언하는 단원들이 나타난 것이다. 극연을 처음 시작할 때처럼 언론과 협력해서 극연의 영화제작을 의미 있게 소개하고 대중에 광고하여 흥행과 의미를 만들어내려 했으나 극연의 영화제작은 기대와 달리 극단을 위기에 빠트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후 극연 구성원들에게 영화는 언급하고 싶지 않은 잊고 싶은 경험으로 지워지게 된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최금동 원작, 이효석 각색, <에련송>, 1939.
 유치진, <도생록>, 『조광』, 1938.6.
 유치진, 『동량자서전』, 서문당, 1975.
 최금동, 「에련송」, 『동아일보』, 1937.10.5~1937.12.15.
 양승국 편, 『한국근대희곡작품자료집』 8, 아세아문화사, 1989.
 양승국 편, 『한국근대연극영화비평자료집』 13, 연극과인간, 2006,
 『극예술』, 『조광』
 『동아일보』, 『매일신보』, 『조선일보』

2. 단행본

- 박영정, 『유치진 연극론의 사적 전개』, 태학사, 1997.
 이상우, 『유치진 연구』, 태학사, 1996.
 村山知義, 『新劇の再建』, 弘文社, 1947.
 諏訪春雄·菅井幸雄 編, 『近代の演劇』 2, 勉誠社, 1996.

3. 논문 및 기타

- 김성희, 「1930년대 「극예술연구회」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2.
 김재석, 「삼일극장의 <빈민가> 공연과 유치진의 도쿄구상」, 『국어국문학』 제176호, 국어국문학회, 2016.
 김재석, 「유치진의 도쿄구상 실천과 극예술연구회의 <포기>」, 『한국극예술연구』 55집, 한국극예술학회, 2017.
 이광옥, 「기술복제 시대의 극장과 1930년대 ‘신극’ 담론의 전개」, 『한국극예술연구』 44집, 한국극예술학회, 2014.
 이정숙, 「일본의 「신헌극단」이 「극예술연구회」에 미친 영향」, 『어문학』 98집, 한국어문학회, 2007.
 이정숙, 「무라야마 도모요시 감독 <연애의 책임>(1936)과 장르의 횡단」, 『현대영화연구』 19호, 한양대학교 현대영화연구소, 2014.

Abstract

Seeking a Professional Theater and
Film Production of Geugyeon

Lee Jeongsook

Film production was for all the members to do their best to achieve the goal of a professional theater of Geugyeon in its second stage. Geugyeon's first movie <Aelyeonsong> was a search for way that balance artistry and popularity, considering the genre characteristics of movie. It promoted the entire film making process through 『Dongailbo』 and to open the movie the next day after the serial. Film production was designed to run Geugyeon as a professional theater. Yoo Chijin wanted actors to appear on the movie for economic help to run a professional theater. But the failure of the film invested a lot of capital resulted in even more extreme operation of Geugyeon.

Key Words : Aelyeonsong(愛戀頌), Dosaenglog(鬮生錄), Murayama Tomoyoshi, Second Period of Geugyeon, Shinkyougekidan, Yoo Chijin

접 수 일: 2018년 11월 14일

심사기간: 2018년 11월 18일 - 12월 2일

게재결정: 2018년 12월 21일